

이 학 영 | 이학박사/고려대 수생태해설사 교수  
우리협회 건설분과 부위원장  
(koreafish@hotmail.com)

이학영의 자생어 칼럼 22

# 우리 하천 우리 물고기

## 변색의 천재 - 꺾지

학 명 : *Coreoperca herzi*

지역 방언 : 깔때기, 네눈쟁이, 뚝저구, 청점볼낙 등

분 류 : 농어목 꺾지과

자생 수역 : 전국의 하천 상·중류

주 서식장소 : 물이 맑고 큰 바위와 자갈이 깔린 곳

번 식 기 : 5-6월

크 기 : 20센티 내외

꺾지는 우리나라의 서해와 남해로 흐르는 각 하천의 2급수 이상 맑은 물에 서식하는 한국특산어종이다. 다 자란 성어는 30-40cm 정도로 한국산 담수어 중에서는 중형에 속한다.

이 물고기는 계류에서 흔히 잡히고 맛이 좋아 일반인들에게 널리 잘 알려진 어종이고 우락부락하게 생겼으나 멋진 등 지느러미를 가져 수목화나 어탁의 소재로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체고는 높고 몸은 옆으로 뭉치 납작하다. 아가미덮개에는 눈 크기만한 청록색 무늬가 자리 잡고 있다. 입이 매우 커서 강도래 등 수서곤충, 물고기를 사냥하여 포식하는 육식 어종이다. 생존력이 강해 사육 어항에서 한두 달 먹이를 먹지 않고서도 지탱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때는 체력 소모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돌 틈에서 꼼짝도 하지 않는다.

꺾지는 가히 물속에 사는 카멜레온이라고 칭해 주어도 손

색이 없다. 주위 환경이나 상황에 따라서 몸색을 재빨리 바꾼다. 검고 칙칙한 색을 띠다가도 어느새 환한 몸색으로 탈바꿈하며 몸의 무늬도 다채롭게 변화시킨다. 이는 천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공격 대상인 먹잇감에게는 자신을 노출시키지 않는 훌륭한 위장술인 것이다. 이렇듯 꺾지의 체색이 다양하여 그기준을 하나로 못 박기 힘들지만 대체로 황갈색 바탕에 암갈색의 가로무늬가 6-8개 체측에 흩어져 있다.

용존산소량이 풍부하고 물살이 빠르며 바위와 자갈이 많이 깔린 곳에서 각자 세력권을 형성하여 다른 꺾지가 접근을 하지 못하도록 경계를 늦추지 않는다. 만약 자신의 테리토리 안에 침략자가 들어오면 결사항전으로 이를 지켜내려고 하는데 종종 이 싸움에서 크게 다치거나 심하면 어느 한 쪽이 죽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통상 터줏대감 꺾지가 흠그라운드 의 잇점을 십분 활용, 굴러온 돌 꺾지를 물리치는 경우가 많다.

산란기는 5~6월이다. 수컷이 큰 바위 밑에 알맞은 공간을 만들면 암컷이 와서 추파를 던진다. 꺾지는 특이하게도 암컷의 쫄무니를 따라다니기보다는 수컷이 도도하게 배짱을 부리며 다가오는 암컷들 중에서 배필을 고르는 물고기. 추녀 꺾지나 성격 차이가 나는(?) 암꺾지는 아예 처음부터 아버린다. 그러다 홀아비로 독야청청 늙어가는 수꺾지가 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마음에 드는 암컷에게 신혼방을 활짝 열어 둘 천정에 알을 낳아 붙이게 하고 곧장 방정을 하여 수정시킨다. 산란 후 매정하게 암컷을 아 보낸 수컷은 지극 정성으로 알을 보호하고 온 몸과 지느러미를 움직여 쉬지 않고 열심히 산소를 공급해 준다.

약 2주 정도 알이 부화되기 전까지 꺾지는 무엇을 먹고 그 힘든 작업을 하는 것일까? 놀랍게도 자신이 애지중지하는 알

들 중에서 일부를 섭취한다. 먹잇감을 사냥하기 위해 산란장을 떠났다가 다른 물고기에게 모두를 먹히느니 대를 위해 소를 희생하는 본능적인 지혜를 터득하고 있는 것이다.

부화된 어린 새끼들이 보금자리를 떠날 때까지 이들을 지켜주는 꺾지의 지극한 자식사랑은 인간 못지않다.

하천 복원시 꺾지 서식처는 호박돌, 거석 등이 어우러져 공극이 큰 산란터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

### 꺾지 마라

상감 이학영 / 시인

벽계(碧溪)에 묻혀 사는  
미물 물고기라고  
우습게보지 말라

이래보아도 저래보아도  
맛 상한 너희처럼  
휩쓸리지는 아니한다

냄새나고 더러운 곳에선  
백번 죽어도  
한번 살지 않나니

맑고 마음가시 곧은  
내 뜻 그 누구들  
꺾지 못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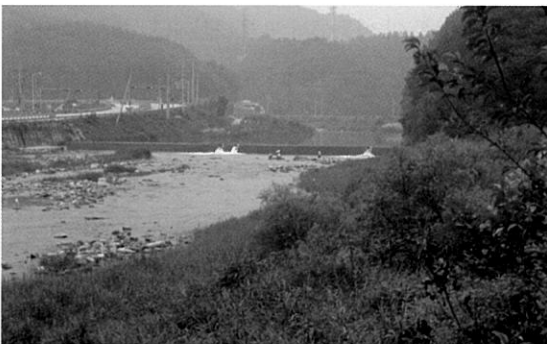
웅고집장이이기 때문이다



**꺾지 수컷** 꺾지는 물이 맑은 여울의 바위 밑에 알을 낳아 붙이는 번식생태를 가지고 있다. 5월 짝짓기 시기에 바위 밑에서 자신의 보금자리를 지키는 꺾지의 수컷이 한껏 인상을 쓰며 사주경계를 하고 있는 모습이다.



**몸색이 변하는 꺾지** 꺾지는 환경변화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한다. 주위가 밝아지면 꺾지의 몸은 하얀반점이 더 커져 환한 모습으로 탈바꿈하고 어두운 곳에서는 칙칙한 몸색으로 자신을 보호한다. <물속의 카멜레온>이라는 별명이 어울린다.



**황성 섬강** 꺾지가 살고 있는 강원도 섬강의 지류. 이곳에도 수중보가 있어 물고기들이 오르내리는데 지장을 주고 있다. 꺾지는 맑은 물, 여울이 치는 계류를 좋아하고 전국에 걸쳐 분포 하지만 요즘 오염과 남획으로 인간에 대한 적개심이 하늘을 찌를 듯하다.



**落書魚** 인시동 뒷길 어딘가의 주막. 시인들과 함께 비몽사몽 3차로 들어선 곳. 벽면에는 온갖 낙서가 매뉴 대신 도배가 되어 있는데 마침 이 물고기 벽화가 눈에 들어와 본능적으로 사진에 담았다. 꺾지를 닮은 그림을 그린 화가(?)는 <인생이란 이런 것?>이라는 철학적 명제를 달아놓았다.